



KIA ‘임시 주장’ 박찬호 ‘빛나는 조연’ 되겠다

KIA 타이거즈의 임시 주장 박찬호가 팀 승리를 위해 그라운드 안팎에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찬호가 지난 22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1회초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출루해서 기회 만들고 호수비로 승리 지키는게 임무
후배들에게 자신감 심어주고 ‘원팀’으로 위기 극복

“빛나는 조연으로 팀 승리 위해 달리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임시 주장’ 박찬호가 하나로 팀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 KIA는 계속된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박찬호도 부상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경기 도중 슬라이딩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면서 3월 26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부상 복귀 이후 내야 사령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른 시즌이 전개되고 있다.

불펜 난조 속 야수진의 부상 선수가 이어지면서 KIA는 하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팀의 리드 오프로 공격의 물꼬를 타야 하는 박찬호는 최근에는 ‘임시 주장’ 역할까지 맡고 있다.

주장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한 뒤 임시 주장을 하고 있던 김선빈까지 다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박찬호가 ‘임시 주장’ 타이틀을 물려받았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박찬호

는 ‘묵묵한 조연’을 이야기한다.

박찬호는 “나로 인해서 승리를 하고 그런 팀은 아니다. 도영이나 형우 선배가 잘 치면 이기는 것이고, 그 앞에 몇 명의 주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량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3, 4, 5번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부터 느낀 것인데 팀을 생각하면 내가 타석에서 빛나면 안 된다. 경기가 끝났을 때 내 칭찬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결승타치고, 싹쓸이하는 그런 경기는 1년에 1~2경기면 된다”고 웃었다.

부지런히 출루해서 기회를 만들고, 좋은 수비로 팀 승리를 지키는 게 박찬호가 KIA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이야기다. 박찬호가 타격의 중심이 되 기보다는 ‘해야 할 선수’들이 잘 하면서 경기를 풀 어가는 게 KIA의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올 시즌 흐

름은 그렇지 못하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젊은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에 포진하면서 시험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 팀의 위기가 기회가 된 시즌, 우승 멤버들 없이도 승리를 만들고 순위 싸움을 해야 한다.

박찬호는 ‘임시 주장’으로 후배들이 자신있게 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찬호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 후배들이 많다.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워닝 멘탈리티(Winning Mentality)”라고 말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지만 프로 선수로 자신감 있는 승부를 하면서 승리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다독이고 있는 박찬호. 또 하나 박찬호가 강조하는 게 ‘원팀’이다. 하나로 뭉쳐 부족한 부분

을 채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게 박찬호의 이야기다.

박찬호는 “워닝 멘탈리티와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지금 공교롭게 내 타격 사이클이 많이 떨어졌다. 후배들에게 승리를 향한 욕심과 팀이라는 걸 많이 심어주려고 한다. 뛰어나지 않은 재능을 가진 내가 버티고 겪어왔던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겨낼 수 있게 많이 주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팀이 중요하다. 팀이 이겨야 선수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기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해야 한다. 응원해주는 동안 팬들이 있는 이상, 핑계 없이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 후배들 열심히 다독이면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디펜딩 챔프 울산 잡고 상위권 도약”

오늘 안방서 K리그1 16라운드

광주FC가 울산HD와의 5월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가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6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5월, 마지막 승부다.

광주는 앞서 리그일정은 물론 코리아컵경기까지 6경기를 치렀다. 국제축구연맹(FIFA) 연대 기여금 논란 속 수비의 핵심 김진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힘든 5월이었다.

앞서 지난 25일 홈에서 진행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골로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0-1 패배를 기록,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포항전 승리 여세는 잊지 못했지만 광주는 현재 15경기에서 6승 4무 5패(승점 22)를 기록하면서 6위에 위치해 있다. 4위 김천상무와 승점 2점 차, 3위 울산과도 승점 6점 차다. 특히 울산은 광주보다 2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로테이션을 가동해 다양한 옵션을 마련했고, 선수들의 경기감각을 조율했다.

광주는 울산전 승리로 위기의 5월에 마침표를 찍고 반격의 6월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6월 예정된 5경기에서 광주보다 순위가 높은 팀과의 매치업은 1차레에 그치는 만큼 대진표가 나쁘



광주FC가 28일 울산HD를 상대로 5월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변준수(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로 광주가 승리를 노린다.

〈광주FC 제공〉

지 않다.

광주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잡고 6월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시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선제골’이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올 시즌 선제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했다. 수비가 탄탄해지고 있는 만큼 선제골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승리 확률은 높아진다.

올 시즌 15경기에서 15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광

주는 앞선 10번의 리그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한 경우가 1번에 그친다.

광주는 주말 강원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가 체력을 비축한 아사니, 오후성, 가브리엘 등의 자원을 앞세워 울산 골대를 겨냥할 전망이다.

광주가 초반 공세로 울산을 뚫고 든든한 수비로 승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번 챕터는 끝났다”

호날두, 사우디 리그 최종전 뒤 이적 암시 글 올려

사우디 프로축구 알나스르에서 뛰어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사진)가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호날두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챕터(장)는 끝났다. 이야기? 아직 쓰이고 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알나스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곁들였다.

호날두의 글은 알나스르가 알파데와 원정 경기로 치른 2024-2025시즌 사우디 프로리그 최종전이 끝난 뒤 게시됐다.

호날두는 이날 풀타임을 뛰며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기도 했으나 알나스르는 2-3으로 역전패했다.

호날두는 2022년 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결별하고 알나스르로 향해 전 세계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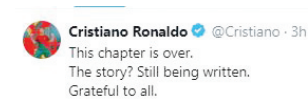
알나스르에서 2년 반을 뛴 호날두의 계약기간은 올해를 끝낸다.

호날두는 알나스르에서 2023-2024시즌 35골을 터뜨려 사우디 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우고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적 후 중동, 아프리카팀들이 참가하는 아랍클럽챔피언스컵에서 정상에 섰을 뿐 리그 등 다른 대회에서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알나스르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18개 팀 중 3위에 자리했다.

알나스르와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호날두의



이적설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호날두가 클럽 월드컵에 출전할 수도 있다. 몇몇 클럽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32개 팀이 모여 세계 최강 프로축구팀을 가리는 2025 FIFA 클럽 월드컵은 오는 6월 미국에서 개막한다. 호날두의 소속팀 알나스르는 출전 자격이 없다. FIFA는 클럽 월드컵 출전팀에 현 지시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수 영입이 가능하도록 특별 이적 기간을 정했다.

/연합뉴스